

1. 가르멜의 역사

- 보통 “가르멜회”라고 부르는 가르멜 수도회의 정식 명칭은 “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수도회”이다. 가르멜은 이스라엘 갈릴래아 지방에 있는 해발 546 M의 산 이름으로 “비옥한 땅, 포도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수도회의 발상지는 가르멜산 중턱에 엘리야 샘이 있는 와디 아인 에스 시아 (Wadi Ayin es siah)라는 곳이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때부터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를 본받아 하느님 사랑에 불타는 은수자 (隱修者: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수도자)들이 가르멜산에서 각자 은수 생활을 시작했다.



<가르멜산에 있는 엘리야 샘 >

<가르멜산의 최초의 수도원 Wadi Ayin es siah>

- 12 세기 중엽, 팔레스타인 성지 (聖地, 거룩한 땅) 회복을 위해 십자군 전쟁에 나선 경건한 신자들 중에서 일부가 성지 회복 후에도 가르멜 산에 남아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은수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 이러한 은수자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체적인 수도생활을 조직하게 되었고 13 세기초 (1206 -1214 사이)에 당시 예루살렘 총 대주교였던 성 알베르토 하보가드로 주교에게서 수도회 규칙서를 받아 은수자적 수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다. (1226 년 교황 호노리우스 3 세로부터 수도회 회칙을 처음으로 인정 받았다.)



<최초의 회규>



<성모님께 봉헌된 최초의 경당>

- 이후 회교도들의 팔레스티나 재침공을 피해 1230 년 대에 유럽으로 수도회가 이주하게 되었고, 당시 유럽의 상황에 맞게 기본적인 은수적 생활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른 사도직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은수자의 삶 + 사도직 활동) 1247 년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4 세로부터 원초적 은수 정신과 사도직 실천을 겸비한 탁발수도회로 최종 승인 받았다.

- ☞ **탁발수도회**(托鉢修道會): 창설당시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이건 모든 소유의 포기를 서약한 수도단체. 그러나 수도회가 커지면서 수도자 양성 및 정주를 위한 공동 재산의 보유가 불가피해지자 트리엔트공의회 (1545-1563) 이후 공유재산은 인정되었다. 영어명은 ‘구걸하다’(mendica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가 설립한 프란치스코회(1209년)와 성도미니코가 설립한 도미니코회(1216년), **가르멜 수도회**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최초의 탁발 수도회들은 기존 수도회의 엄격한 이념에서 **청빈과 사도직을 특히 강조**하였다. (가톨릭 사전 참조)
- 유럽으로 이주한 가르멜 수도회는 수도회의 정체성과 외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당시 총장이던 성 시몬스톡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어 수도회를 영구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표지로 가르멜 성의(스카폴라)**를 직접 건네주심으로써 굳건한 영적 도약을 하여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크나큰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성모님께서 성 시몬 스톡에게 건네주신 스카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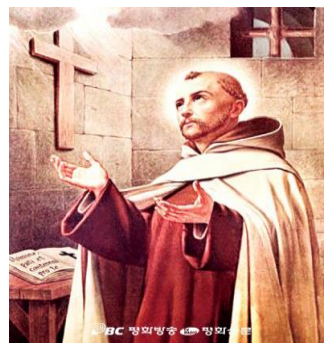


아빌라의 성 요셉 가르멜 수녀원 (1562)

- 16세기, 복음(the Gospel) 과 최초의 회규 (원회규, 회규=회칙 [모임의 규칙])의 정신에 충실하였던 스페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성녀는 완화된 가르멜회를 개혁하여 **1562년에 아빌라의 성 요셉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였다.
- 성녀 데레사는 또한 개혁 가르멜 수녀들의 ‘**관상적이며 사도적인 소명**’을 함께 지니며 사목적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남자 가르멜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때마침 갖 사제서품을 받은 **마티아 수사 (십자가의 성 요한)**를 만나면서 개혁 가르멜 수도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창립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개혁을 따르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 (O.C.D)’ 와 개혁 이전의 규칙을 따르는 ‘원(源)가르멜 수도회 (O.Carm)’가 함께 있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남녀 가르멜 수도회는 모두 ‘맨발 가르멜 수도회’(개혁 가르멜)에 속한다.
- 가르멜 수도회는 현재 전 세계 126 개국에 850 여개의 남녀 가르멜 수도원이 있는 국제 수도회로서 11,657 명의 수녀들과 4,051 명의 수사들이 있으며, 가르멜 정신으로 살고자하는 여러 활동 수도회와 가르멜 영성을 세상 한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고있는 수많은 가르멜 제 3 회원들(흔히들 가르멜 재속회원이라 불림)이 가르멜의 영적 가족으로 유대를 이루고 있다.



< 가르멜 제 1 회: 남자 수도자 > < 가르멜 제 2 회: 여자 수도회 > < 가르멜 제 3 회: 재속회원들 >

- ❖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회원현황 (2020년 6월 현재)
39개 공동체에 총 3,540명
(국내 36개 공동체, 남가주 2개 공동체, 뉴욕 1개 공동체)

- 개혁이후 지난 450여년동안 가르멜 수도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 개혁, 쇄신에 적응하면서 예수의 테레사 성녀, 십자가의 성 요한, 테레사 마르가리타 성녀,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 삼위일체의 엘리자베트 성녀, 로스 안데스의 예수의 테레사 성녀, 성녀 에디트 슈타인등 수많은 성인 성녀를 배출함으로써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관상적 사도직을 드러나지 않게 구현하고 있다.

2. 한국 맨발 가르멜 남자 수도회

- 프랑스 가르멜에서 서원을 하신 한국 신부님 세분 (박병해 스테파노, 정대식 플로리아노, 박태용 요한)과 이탈리아 베니스 관구출신의 요아킴 귀쥘(Joachim Guizzo) 신부님께서 1974년 9월 8일 성모 탄생 축일에 서울 삼성동에서 첫 공동체 창립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맨발 가르멜 남자 수도회의 한국지부로의 시작이다.
- 2001년 9월 13일 한국지부가 준관구로 승격되며 4대 지부장이신 장석훈 베르나르도 신부님이 초대 준관구장을 역임하셨고, 2005년에 김영문 브루노 신부님이 2대 준관구장으로 선출되셨다. 2009년 포르트갈 파티마 성지에서 열린 세계 가르멜 총회에서 5월 6일 한국 가르멜이 관구로 승격되고, 정순택 성모의 베드로 신부님이 부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준관구에서 관구로 승격되며 준관구장님이신 김영문 브루노 신부님이 초대 관구장으로 취임하셨다. 2011년 1월에 2대 관구장으로 이돈희 보니파시오 신부님이 선출되었고 매 3년을 회기로 관구 총회를 통하여 관구장이 선출되며 2014년에 서봉교 예로니모 신부님이 3대 관구장으로, 2017년에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님이 4대 관구장을 역임하셨고, 2020년 1월에 현재의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님이 5대 관구장으로 선출되시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미주 가르멜 재속회의 역사

- 1974 년 한국 맨발 가르멜 남자 수도회의 창립에 앞서, **한국 가르멜 재속회는 1948.10.31** 에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가 창립**되었고, 1998 년 10 월에 한국 가르멜 재속회 창립 50 주년을 지내며 창립 50 년사를 발간하였다. 미주에는 남가주에 LA 재속회가 1996 년 5 월 10 일에 창립되었고, 현재 한국 재속 맨발 가르멜회는 국내에 36 개, 미주에 3 개를 포함하여 현재 39 개의 공동체가 있으며, 현 39 개 공동체중 여덟번째로 25 주년을 맞이하는 공동체이다.
- 창립과정을 살펴보면, 1996 년 3 월말, 남가주 성령봉사회 초청으로 박종인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님**의 가르멜 영성 소개 피정을 계기로 남가주에 **<가르멜>의 씨앗**이 심어졌다. 곧이어 한달 뒤인 **1996 년 5 월 1 일**부터 4 일까지 **박태용 십자가의 요한 신부님**께서 엘에이 성 바오로 성당에서 1 차 가르멜 영성 소개 피정이 있었고 피정 참가자 100 여명 중에 남자 14 명 여자 33 명, 총 47 명의 지원자를 받아 **1996 년 5 월 10 일 한국 가르멜 미국 재속회가 창립**되었다. 10 월엔 세라 피정 센터에서 2 차 피정을 하였으며 17 명이 지원하였다.
- 창립 다음해인 1997 년 5 월 8 일 부터 3 일간 첫 연피정에서 박 요한 신부님의 허락을 받은 **31 명이 입회식**을 하였다. 1998 년 2 월, **김영문 성령의 브루노 신부님**을 초대 지도 신부님으로 부임하시어 미국 가르멜 관구 소속인 알함브라 소화 데레사 성당에서 월모임을 하였다. **브루노 신부님**이 2 차 연피정을 해주셨고, 창립자이신 박 요한 신부님께서 1999 년에 3 월에 2 대 지도 신부님으로 부임하시어 5 월말 3 차 연피정을 마치시는 5 월 31 일에 변삼도 베르나르도 회원을 포함 **총 22 명이 1 차 단순 서약식**을 가졌다.



제 1 회 입회자 31 명 (1997.5.11)



첫 단순서약 22 명과 창립자인 고 박태용 요한 신부님 (1999. 5. 2)

- 1999 년 로스앤젤레스 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20 만불의 청약금을 받아 마침내 **2000 년 11 월 5 일** 엘에이에 가정집을 구입, 처음으로 바라던 가르멜의 처소인 **재속 회관** (1260 S. Windsor Blvd., Los Angeles, CA 90019) 을 마련하게 되었다.
- 1999 년에는 미 동북부에서도 가르멜 재속회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LA 재속회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 재속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뉴욕 지역에는 “**십자가의 성요한 재속회**”,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에는 “**아기예수의 성녀데레사 재속회**”로 발족하였다.

- 2001년 11월에 예수의 성녀 테레사 재속회 1차 총회가 열렸으며 변 베르나르도 회장님 이하 참사진이 선출되었다. 2002년 5월 5일, 6차 연피정에서 장석훈 소년 예수의 베르나르도 지부장 신부님을 모시고 15명의 첫 종신서약으로 가르멜의 꽃이 자라 꽃망울을 터트린 뜻깊은 연피정이었다.



제 1 차 종신 서약자분들과 장석훈 베르나르도 신부님 (2002.5.5)

- 2001년 11월에 CA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고, 2002년 8월 29일 미국세청 IRS Tax Exemption 과 2002년 12월에 주정부 FTB Tax Exemption 을 등록을 하였다
- 2005년 2월 13일 라하브라 새 성전에서 수도원 입주 첫 미사가 열렸으며 그 해 10월 15일 오렌지 교구 타드 브라운 주교님과 브루노 준 관구장님등 16분의 신부님들의 공동 미사 집전으로 라하브라 수도원 축성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한국관구 재미 가르멜 수도원 축성식(2005.10.15)

- 2005년 5월 21일에 “한국 가르멜 남가주 재속회”로 Legal Name 등록을 하였다. 2006년 추수감사절에 루이스 아로스테귀 가르멜 총장님, 스티브 왓슨 부총장님 및 제랄드 워너 관구장님께서 우리 재속회를 방문하셔서 재속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이스 아로스테귀 가르멜 총장님, 스티브 왓슨 부총장님 및 제랄드 워너 관구장님 (2006.11.23)

- 그동안 우리 재속회를 이끌어 주신 신부님들과 수사님들 그리고 재속회 공동체의 회장과 참사진은 본 홈페이지 회원 전용공간에 별도의 역혁표로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 현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는 총 인원은 102 명 (중신 65 명, 단독 14 명, 단순 8 명, 수련 10 명 및 청원 5 명)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수도원에서 월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년 창립일이 있는 5 월에는 야외미사와 야유회 및 운동회를 외부 공원에서 월모임으로 하고, 총 10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매월 구역모임을 하면서 공동체를 굳건히하고 있다. 매년 10 월에는 2 박 3 일간, 관구 수도회 신부님을 지도 신부님으로 모시고 연피정을 하며 연피정 마지막날에는 종신서약식과 축하파티를 갖는다.



수도원 월모임 미사후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른편 부터- 1,2,4,5,7,8,9,10 구역장



야외 월모임 (매년 5 월)



야외 월모임 미사 (매년 5 월)



연피정 강의 (매년 10 월, 2 박 3 일)



연피정을 마치며...